

# “노트북 200만원 훌쩍”... ‘칩플레이션’에 소비자 울상

### 반도체 가격 상승에 LG·삼성, 노트북·태블릿 가격 인상 AI 수요 서버 급증 영향... 내년까지 수급 불안 지속 전망

반도체 가격 상승과 환율 부담, 공급 불안이 겹치면서 노트북과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른바 ‘칩플레이션(Chipflation)’ 여파가 일상으로 변하면서 광주지역 소비자들도 새 학기 준비와 취업, 업무에 필요한 기기 마련에 적잖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IT·전자 업계에 따르면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최근 주요 노트북과 태블릿 PC 제품군의 가격을 잇달아 상향 조정했다.

LG전자는 지난 1일부터 노트북 그룹의 일부 모델 가격을 약 40만원 인상했다. 앞서 지난 1월 신제품 출시 당시에도 전년 모델 대비 30~50만원의 가격 상승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3개월 사이 두 차

레나 가격이 뽀 섰다.

삼성전자 역시 지난 7일부터 갤럭시북6 시리즈 가격을 사양에 따라 최소 17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인상했다. 고성능 모델인 갤럭시북6 울트라는 최대 90만원, 보급형 라인인 갤럭시북6과 갤럭시북6 프로 역시 각각 최대 88만원, 68만원씩 가격이 올랐다. 태블릿 PC인 갤럭시탭 S11 울트라 등도 최대 15만원가량 상승했다.

이 같은 IT 기기 가격 인상은 흐름에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D램 가격은 2025년 4분기 대비 최대 90% 이상 상승했다. 낸드플래시 등 저장장치 가격도 공급 부족으로 80%나 올랐다.



13일 광주 동구 한 컴퓨터 매장에 노트북이 진열돼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서버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제조사들이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고용량 메모리 생산에 집중한 영향이다. 이로 인해 범용 메모리 공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며 부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상승세에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 해상 물류비 증가, 교환율이 동시에 겹쳤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입 부품 비

중이 높은 IT 기기 가격을 직접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광주 지역 소비자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수도권에 비해 선택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이 제한적인 데다, 인기 모델은 서울·수도권 물량부터 우선 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온라인 구매도 대안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 과제나 취업 준비, 재택근무처럼 당장 기기가 필요한 사람들은 배송 지연을 감당하기 어렵다.

광주 북구에 사는 취업준비생 이수현씨(27)는 “서울은 행사도 많고 할인도 자주 하는데, 지방은 체험상 선택지가 적다”며 “같은 돈을 내도 더 늦게 받고, AS도 불편한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해 가격대라면 부모님 도움을 조금 받아서 살 수 있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예산을 훌쩍 넘기는 탓에 중고까지 같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갑작스러운 ‘칩플레이션’에 정부도 디지털

영양과 예방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 부처는 저소득층의 PC·노트북 구매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지원 대상과 보조 규모를 늘려 교육·취업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국가기관 불용 PC 처분 방식을 ‘무상양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현재 연간 약 8만대 불용 PC가 발생하며, 이중 2만2000대가량이 폐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중 58%는 수리 시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조달청 고시를 개정해 내용연수가 지난 PC 처분 시 무상양여를 우선 검토하고, 폐기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직접 지원도 강화한다. 이번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확정 시 증액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8000억원을 활용해 시도교육청이 PC 지원 사업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보다 촘촘한 대책이 필

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 보조금 확대만으로는 가격 급등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 대상 리퍼비시 제품 지원 확대, 공공기관 공동 구매를 통한 단가 인하, 교육용 기기 장기 렌탈 제도 도입, 디지털 바우처 확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광주 동구에서 20년째 전자제품 매장을 운영 중인 김모씨(52)는 “요즘은 손님이 물건은 고르러 오는 게 아니라 가격이 얼마나 더 올랐는지 확인하러 오는 분위기”라며 “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은 꼭 필요한 제품도 쉽게 못 사는 상황이라 현장 체감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있는 재고가 다 떨어지고 리뉴얼된 상품이 나오면 또 가격이 오른텐데, 그렇게 되면 소비자도 마진가지지만 파는 사람들도 힘든 상황이다”며 “정부가 가격 상승을 단순 물가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지역업자와 소비자를 모두 고려한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신세계포인트센터 · 사은품 COMPLIMENT

2026 광주신세계 전남광주 ONE 멤버십

2026 광주신세계 전남광주 ONE 멤버십 가입조건

전라남도에서 거주하는 성인 고객

혜택 1 기업 축하 할인 쿠폰 3종

혜택 2 월간 정기 쿠폰 4종

혜택 3 ONE 멤버십 마일리지

광주신세계가 전남도 고객들을 위한 '전남광주 ONE 멤버십'을 선보인다.

## 소진공, 폐업 소상공인 심리 치유 나섰다

### 희망리턴패키지 심리회복지원 현장 간담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상공인)이 폐업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희망리턴패키지 심리회복지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관계자, 심리회복프로그램에 참여한 소상공인 등 총 14명이 자리

했다. 이는 폐업 소상공인의 우울감과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 회복 지원 프로그램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희망리턴패키지 심리회복지원 사업은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협업하여 산림치유 활동을 통해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심리회복지원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이 숲속 트레킹 등 체험 활동에 대한 소감을 공유하고,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느낀 심리 회복 효과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인태연 이사장은 참석자들과 함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직접 체험하고, 치유 담당자 및 참여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탄소중립 설비투자 기업 모집 중기부, 최대 3억원까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공급망 트랙)'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은 탄소 감축 의무 규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정 맞춤형 탄소 저감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컨설팅과 시장 조사, 설비 구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설비는 에너지 절감 설비와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장비, 인공지능(AI) 기반 공정 제어 시스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등이다.

이번 공급망 트랙은 대기업과 1차 협력사 등 원정기업과 공급망으로 연결된 협력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일반형과 고도화 유형은 현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서류평가와 현장점검,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사업 종료 이후에는 5년간 설비 운영 최적화와 감축 효과 산정 등 사후관리도 진행된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 광주신세계, 전남광주 ONE멤버십 출시

광주신세계가 전남도 고객들을 위한 '전남광주 ONE 멤버십'을 선보인다. 광주신세계는 앞서 광주지역 고객들 위주로 제공되던 멤버십 혜택을 전남 고객들에게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남도 고객들을 위해 선보이는 이번 멤버십은 할인과 무료 음료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전남광주 ONE 멤버십은 전남도 고객들이 대상으로 주민등록 주소 기준 전남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인 고객 중 신세계 백화점 멤버십 회원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전남광주 ONE 멤버십은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 사은행사장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전남광주 ONE 멤버십은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가입 시 제공되는 혜택은 총 3가지로 가입 축하 쿠폰, 월간 정기 쿠폰, ONE 멤버십 마일리지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초대석**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균형 이루는 데 힘 쏟겠다"

**초대석**

**김원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위원장  
"문화중심도시 광주, 시민 지지가 완성의 힘"

**이달의 CEO**

**정태영** 스몰액션 대표  
페어양, 가방으로 재탄생 해양쓰레기 자원 순환

**화제의 인물**

**오금석** (주)아생인더비 대표  
꿀벌로 일군 50년, 한국 양봉의 길을 바꾸다

2026.04 vol. 155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 전라도인

구독문의: (062)370-7080 광고문의: (062)370-7070

**전남의 보물섬**

여수 손죽도  
진달래 향에 봄소식 싣고  
화전에 봄의 풍류 담았다

**포커스**

여수산단 생산 차질 현실화...  
중등 리스크 직격탄

**커버스토리**

**윤호열** 전 전남바이오진흥원장  
전남 바이오 '제2창업'  
국가 전략산업 도약 발판 마련